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17주일
제31권 35호(가해) 2011.7.24

[묵상]



성모자와 성녀 안나 <1507년, 캔버스, 마시, 벨기에 왕립미술관>

하늘 나라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찾는 이에게만 보입니다.
하늘 나라는 보물과 같습니다.
그 값어치를 아는 이에게만 보입니다.
하늘 나라는 그냥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늘 나라는
가질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잃어도
기뻐할 수 있는 값진 보물입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이가 아니라면
보물이 숨겨진 밭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 보물의 값어치를 모른다면
보물을 곁에 두고도 보물인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다면
보물의 참된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갖길 원합니까?
그것을 발견하고도,
그것이 우리의 곁에 있다 해도
우리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보물을 두고도 망설인다면
우리의 삶이 기쁘지 못한 이유일 것입니다.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예비자 교리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전신자 성경통독	저녁 미사후 오전 9:00 오전 11:00 오전 10:00, 오후 8:00
금요일	병자영성체(1째주) M.E. Sharing(3째주)	오전 10:0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성령기도회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 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빈첸시오회 ● 울프레아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낮미사 후 오후 1:00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 권순봉 요안나, 박동옥 요셉, 엄은섭 도로테오
	(생)
주 일 낮 미사	(연) 오진 베드로, 소효균 요셉, 소수연 안나, 김철웅 베드로 & 김순선 아네스, 박송희, 이병호 토마스, 고준희 제임스, 엄익찬 안토니오, 김신주, 조명순
	(생) 한창주 요아킴 & 한경숙 안나, 최기남 야고보, 조경림 요셉, 신대철 알베르토, 박명순 안나, 김미성 에스텔, 현인범 베드로, 정진확 알베르토, 정학순 발바라, 사회복지분과위원들, 토런스 남3반 가정들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열왕기 상권(1 Kings) 3,5-6,7-12

화답송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몫이오니, 당신 말씀 지키기로 약속하였나이다. 당신 입에서 나온 가르침, 수천 냥 금은보다 재물은 값지웁니다.○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자애를 베푸시어 저를 위로하소서. 당신 자비 저에게 이르게 하소서. 제가 살리이다. 당신 가르침은 저의 즐거움이옵니다.○
○저는 당신 계명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당신의 모든 규정을 바르게 따르며, 저는 온갖 거룩한 길을 미워하나이다.○
○당신의 법 하도 놀라워, 제 영혼 그 법을 따르나이다. 당신 말씀 밝히시면 그 빛으로, 미련한 이들을 깨우치나이다.○

제 2독서 로마서(Romans) 8,28-30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복 음 마태오(Matthew) 13,44-52<또는 13,44-46>

영성체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87	249	182
봉헌	내이름 아시죠	264	249
성체	279	282	282
파견	199	218	218

4. 너희가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 인간 생명의 새로운 문화를 위하여

▶문화의 변모를 이룩함

지성인들 역시 새로운 인간 생명 문화를 건설하는 데 큰 역할을 지니고 있다. 가톨릭 지성인들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부여된다. 그들은 문화를 형성하는 지도적인 핵심에서, 학교와 대학, 과학과 기술 연구소, 예술 창조와 인간학 연구소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도록 부름받는다. 그들은 복음의 살아있는 힘으로부터 재능과 활동을 위한 자양분을 받으면서 중요하고도 실증된 논문들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생명문화를 위해서 봉사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공적 때문에 전반적인 존경과 관심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런 목적으로 본인은 교황청 생명 학회(Pontifical Academy for Life)를 설립했다. 이 학회에 맡겨진 임무는 "특히 그리스도인 윤리와 교회 교도권의 지침과의 직접적인 관계 안에서, 생명 증진과 관련된 법과 생물학의 주요한 문제들을 연구하고, 정보와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학, 특히 가톨릭 대학교, 생명 윤리 센터들, 연구소들과 위원회들 역시 특별히 기여해야 한다.

매스 미디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하고 중대한 책임이 있다. 그들은 그토록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가 생명 문화를 지원하는 것이 되도록 보장해야 할 사명을 띠고 있다. 그들은 생명에 대한 귀중한 본보기들을 제시해야 하며, 타인들에 대한 긍정적이고 때로는 영웅적인 사랑의 실례들을 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지대한 관심으로 성과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들을 제시해야 하며, 고집스럽게 인간의 존엄성을 모독하고 경멸해서는 안됩니다. 그들은 사물을 해석함에 있어서, 생명과의 관계에 무관심하거나, 경멸하거나, 거부하는 느낌이나 태도를 암시하거나 조장하는 것들을 강조해서는 안된다. 그들은 사실에 입각한 진리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인간성에 대한 심오한 인식과 정보의 자유를 결합시켜 나가야 한다.

99). 생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문화를 변모시키는 과정에서 여성도 사고와 활동을 통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위치는 독특하고도 결정적이다. "남성 우월"의 표본들을 모방하려는 유혹을 거부하는 "새로운 여권주의"(new feminism)를 촉진하는 일은 여성들에게 달려있다. 이 새로운 여권주의는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재능을 인정하고 긍정하고 모든 차별과 폭력과 착취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결론적인 메시지를 인용하여 본인은 여성들에게 절박하게 호소한다. "사람들을 생명과 화해시키십시오." 여러분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실천하도록 부름받았다. 자기 헌신과 타인 수용의 참된 의미를 실천하도록 부름받았다. (◆계속)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수단의 돈보스코’ 이태석(1962-2010) 세례자요한 신부에게 얼마 전 국민훈장의 최고등급인 무궁화장이 추서됐습니다. 한 방송사의 다큐멘터리 <울지마 톤즈>를 통해 이 신부님의 삶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신부님은 어린 시절 부산 송도성당에서 알로이시오(1930-1992) 신부님의 복사를 서며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사제가 되기를 결심했습니다. 미국 메리놀회 출신인 알로이시오 신부님은 6.25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던 한국에서 사제생활을 시작해 평생을 불우한 소년·소녀, 행려인 등 ‘가난한 아이들의 아버지’로 사셨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 성당에서 본 다미안(1840~1889) 신부님의 일대기 영화는 이 신부에게 더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다미안 신부님은 외딴 섬에 갇혀 지내는 한센인들을 희생적으로 돌보신 분입니다.

의대를 마치고 군의관 제대 후에도 사제의 꿈을 접지 못한 이 신부님은 가족의 만류에도 살레시오회에 입회해 2001년 드디어 사제품을 받았습다. 그리고 그는 망설임 없이 가장 가난한 이들을 선택합니다. 가난과 기아, 오랜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 수단의 작은 마을 톤즈에서 교사, 의사, 음악가, 건축가로 일인다역을 하신 것이지요. 어느 날 갑자기 말기 암 판정을 받은 이태석 신부님은 투병생활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톤즈의 아이들에게 빨리 돌아가지 못하는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늘 나라를 밭에 숨겨진 보물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 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마태 13,44)
한 조각농이 밭을 갈다가 보물이 가득 든 상자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는 그 보물을 다시 땅에 묻고는 집으로 돌아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그 밭을 살 것입니다. 그래야 땅에 묻힌 보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무언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또 다른 것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를 묵상하게 합니다. 귀한 보물의 가치는 누구나 잘 압니다. 중요한 것은 보물을 알아보는 눈이 아닐까요?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눈이 없다면 돌맹이를 진주인 양 착각하고 부둥켜안고는 허송세월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많은 ‘이태석 신부님, 알로이시오 신부님, 다미안 신부님’이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로마 8,28)고 고백합니다. 신앙인이 각자의 마음속에 간직한 보물을 발견하고, 그 보물을 이웃을 위해 내어 놓을 때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나라를 어디에서 찾고 있나요?

◆허영엽 마리아 신부/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이번 주 전례 봉사회

다음 주 전례 봉사회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이호미 엘리사벳	신중철 아브라함	해설자	송민영 보나	남성철 베네딕도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김은지 릴리안	이상철 크리스토퍼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1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박진수 스테파노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전지요 글라라	이희경 크리스티나	전하현 마리아	제2독서자	김정아 아나스타시아	박혜경 레나타	이순자 비비아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1반	제물봉헌자			토런스 북 1반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주제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게는 사랑을, 살천하는 믿음 속에 성장하는 백삼위"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야외14처 기금마련 행사 ... 적극 동참해주시요!

- ◆ 성모회 김치 깎뚜기 등 판매
 - 편장 고추장 새우젓 깎뚜기 : 7월31일(주일)
 - 김치 : 9월25일(주일, 빈병 수거합니다.)
 - * 문의 ☎ 성모회장 최길숙 요세피나(310)738-4788
- ◆ 양업회 친교 점심 및 음식 장터
 - 일시 : 8월6일 특전미사, 7일 주일미사
 - 품목 : 족발, 해물파전, 홍합국밥, 각종 음료수
 - 문의 : 양업회장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569-0482
- ◆ 대건회 거라지 세일
 - 일시 : 8월14일(주일)
 - 장소 : 성당 친교장
 - 물품수집 : 의류, 신발, 생활용품, 전자제품, 운동용품, 장난감 등
 - 수거일시 : 8월7일까지 배식대 옆에 마련된 수거함
 - * 문의 ☎ 대건회장 송호창 요셉(323)899-8758

◆ 백삼위 신심단체 '1인1단체 가입' 캠페인

본당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새 회기를 맞아 각 신심단체 활성화 및 회원 가입 확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 단체에 속해 있지 않은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 참여하여 본당 발전에 기여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열심히 봉사하고 활동하는 사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 '야외 십자가의 길' 개인 봉헌

본당설립 30주년기념 숙원사업의 하나인 '야외 십자가의길' 조성 관련, 제단체들의 신청이 마감된 후, 이제 뜻있는 개인 봉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문의 : 본당 신부님

- ◆ 백삼위 골프회 8월 정기 토너먼트
 - 일시 : 8월13일(토), 11시20분까지 집합
 - 장소 : 알론드라 골프코스
 - 문의 : 이남현 막시모 총무 ☎(213)272-3598
- ◆ 제24회 남가주 한인가톨릭 성령채신대회
 - 일시 : 8월20(토), 21일(일)
 - 주제 : "평화가 너희와 함께"(요한 2,18)
 - 장소 : 패사디나 시티칼리지 색슨 오디터리엄 (1570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6)
 - 지도 : 배기현 신부, 이상재 신부, 정현철 신부, 정희옥 신부, 한상만 신부, 황창연 신부
 - 참가티켓 : \$25(본당 사무실에서 구입하면 \$20입니다.)
 - 문의 : 성령기도회장 강혜원 아네스 ☎(310)780-0369
- ◆ 제 68차 남가주 한인 ME 첫주말 수강생 모집
 - 날짜 : 9월2일(금)~4일(주일)
 - 장소 : Mary & Joseph Retreat Center(P.V.)
 - 등록비 : \$50(부부당) * 마감 : 8월14일
 - 문의 : 본당 ME 대표부부 정동호 하삼마오로 & 병옥 율리아 ☎(310)780-9055
- ◆ 본당설립 30주년 기념 종합예술대전 준비
 - 일시 : 9월 한달간
 - 전시작품 : 서양화, 동양화, 조각, 서예, 사진, 공예, 퀼트, 한국화, 민화, 꽃꽂이 등 백삼위교우들의 취미활동 작품
 - 준비위원 : 김윤진 카타리나, 김선제 바오로, 한장환 안토니오, 이명순 크리스티나, 이명렬 라파엘, 김선영 글라라 * 문의 : 이명렬 라파엘 ☎(310)749-0278
- ◆ 성당 안팎 카펫을 깨끗이 세탁했습니다.

음식물과 음료수 등을 흘리지 말고 깨끗이 사용합시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7월24일(주일) : 토런스 서 1반(콩나물비빔밥 \$3)
- 7월31일(주일) : 토런스 남 1반(장터국수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금영도 김선제 김우용 김정엽 김정웅 김정희					
	김종문	김진숙	김찬구	김풍길	나경흠	박광자
미사헌금 : \$2,561	박기돈	박영룡	박완철	박정희	서병교	송기철
	송재훈	송준규	신경훈	신증철	안태갑	오신재
합계 : \$4,530	육근주	이남현	이태옥	익명	정훈모	조소영
	주대중	주영석	최진수	최현찬	한연만	홍광선
성전헌금	황지영	한길선례				
금영도 김선제 김우용 김정엽 김정희 김종문						합계 : \$3,135
김찬구	김풍길	나경흠	박광자	박기돈	박영룡	
박정희	서병교	신경훈	안태갑	이일길	익명	감사헌금 : 민순섬
정훈모	주대중	주영석	최진수	최현찬	한연만	
홍광선	황지영	한길선례				

공지사항

◆ 주일학교 S.O.E.L. 찬양밴드 단원 모집

- 대상 : 6학년 이상(초보자 가능)
- 파트 : 노래, 각종 악기
- 문의 : 김유한 요한 ☎(310)951-8036
- S.O.E.L(Soul Of Eucharistic Laudation)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9학년~12학년(신청마감됐습니다.)
- 일시 : 7월29일(금)~31일(주일)
- 출발 : 금요일 낮12시 성당집합

◆ 주일학교용 흑백(B/W) 프린터 기증 받습니다.

- 세학기를 준비하면서 보다 더 원활한 주일학교 행정업무를 위해 관심있는 단체나 개인의 도움을 절실히 기다립니다.
- 문의 : 주일학교 교장 이인석 비오 ☎(213)258-8665

◆ 학생미사(주일 오전 9시30분)에 빠지지 맙시다.

- 주일학교와 한국학교가 여름방학입니다. 그러나 주일학생 미사는 그대로 진행중이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학교 새학기 2차등록 8월21일부터 접수합니다.

- 등록비 : 첫째 \$120, 둘째 \$80, 셋째 \$60, 넷째 수업료 없음
- 2차접수 : 8월21일~9월11일
- 자모회비 : 한가정당 \$40
- 개강 : 9월11일(주일)

남가주 소식

◆ 결혼 적령기 자녀들 부모들의 모임 '청실홍실'

- 일시 : 오늘 주일(24일) 오후 6시
- 장소 : LA 옥스포드 펠러스 호텔
- 신청 : 정찬열 시몬 사무국장 ☎(714)530-3111
- 후원 : 남가주 한인 종신부제회

◆ 전례 특강 피정

- 제목 : '미사와 우리의 삶'
- 강사 : 손희송 베네딕도 신부(서울가톨릭대학교 교수)
- 일시 : 8월7일(주일) 오후1시
- 장소 : 성 정하상 바오로 성당
- 신청비 : \$5 ☎(818)893-2916

◆ 가톨릭 문우회 회원모집

- 대상 : 문학을 사랑하는 교우, 초보자도 환영합니다.
- 지도 : 창작교실에서 무료지도를 통해 문인으로 등단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박시몬 (213)675-2059, 박안젤라 (213)675-2085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게는 사랑을
살천하에 믿음속에 성장하는 백삼위"

소공동체 7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차 장 차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장정진 베로니카 김명재 아가다 박은혜 클라우디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형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김옥찬 수산나 562-628-1955 7/14(목)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야외 반모임(토런스 파크) 7/3(주일) 오후 1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00-5612	문지숙 엘리사벳 800-5612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야외 반모임 989-0366 7/24(주일) 낮 12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7/9(토) 오후 6시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권영옥 루시아 720-2876 7/10(주일) 낮12시30분 성당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최정숙 수산나 320-0855	김용 스테파노 320-0855 7/15(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희자 마리아 326-6982 7/14(목) 오전 11시 성당
	3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오태환 바오로 750-4051 7/16(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최미영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야외 반모임(아이스하우스캐년) 7/17(주일) 오전 8시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이병우 마리노 953-7903 7/9(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P.V.구역 합동 반모임 7/9(토) 오전 10시 라이언 파크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합동 반모임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합동 반모임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합동 반모임

이번 주 단체 모임

새희기 첫 사목회

오후 1시 강당

다음 주 단체 모임

말씀의 집

참 나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아무 생각도 없이 묵주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영락없이 별 별 생각이 다 기도를 방해해 버립니다. 하다못해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하는 일이 번쩍 떠오르고, 쓰고 있는 원고 말미를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내일 강의 때 입을 옷까지 떠오르면서 머리는 잡생각으로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입으로는 기도를 하지만 마음은 거리에 나가서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집중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 입술을 물지만 몇 초가 지나고 나면 벌써 내 마음은 드라마 사연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하느님께 너무 죄송한 일이지만 그저 나는 이 정도의 여자라는 생각이 저도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알곡의 기도가 아니라 가라지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이것 하나는 고쳐보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이 노력이 나의 기도라는 것을 하느님께선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제 큰 딸 쟈마가 지난주에 견진성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생각하면 하느님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결혼해서 오래 성당의 문을 열지 않아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어느 날 쟈마는 성당의 문을 열고 새벽기도를 가고 저는 가슴이 설레어 뭐라고 언급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동생 마리아 막달레나와 세실리아와 같이 새벽기도에서 만나면 저는 어디를 대고도 큰절을 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했는지 그 광경만 봐도 저는 배부르고 행복의 절정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 쟈마가 견진을 받을 때 저는 밥이 아니라 “감사”라는 말로 종일 배불렀지요. 세상에 이런 황홀경이 있다니...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복 있는 여자입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그 빗줄기가 다 은총의 비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앞으로 제 딸들이 가정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세상에서는 필요한 사람이 되고 이웃에게는 웃음을 나누는 딸들이 된다면 하느님도 웃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오직 생각의 집을 만들고 사고의 원천이 되며 세상의 빛이 되는 말씀을 제 딸들이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올바른 생각으로 가라지와 알곡을 알아보는 눈을 가

질 수만 있다면 제 딸들은 사랑받는 하느님의 딸로 외롭지 않으리라 저는 바랄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저의 묵주기도는 여전히 잡생각으로 엉키고 설킨 기도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묵주기도를 하지 않으면 성모님과 멀어지는 것 같아 죽기까지 묵주를 잡겠지만 저의 악과 잡생각이 말씀의 집을 허물면 저는 그 자리에 천막이라고 쳐 놓고 다시 기거하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제게 말씀이 오고 있으니까요.

◆신달자 엘리사벳 / 사인

이건 알아두세요.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묵상이란 용어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 주제는 어떤 내용입니까?

마음과 정신을 가다듬어 하느님의 현존 속에서 하느님과 관계된 모든 일에 관해 생각에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묵상은 ‘생각만으로 드리는 기도’ ‘정신의 기도’라 할 수 있으며 지적(知的)인 행위와 의지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묵상의 주제로는 신앙의 신비에 관해서나 신앙의 진리, 혹은 예수의 일생, 교회의 가르침, 성서의 내용, 성인들의 생애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신앙을 보다 깊이 통찰하게 되고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바를 깨닫게 되어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묵상에는 하느님의 뜻을 알고 따르려는 열망과 의지, 결심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묵상은 아직 신앙이 얕은 신자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조금씩 진보하여 높은 수준에까지 도달하게 되면 하느님과의 보다 깊은 친교를 이룸으로써 내적인 기쁨을 얻고 하느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됩니다. 그러나 묵상은 관상(觀想)과는 다릅니다.

많은 묵상법들 가운데 성 이냐시오 로올라의 「영신수련」에서 설명한 방법을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자료실

아버지의 뜻이 저와 모든 피조물 위에
이루어진다면
이 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 복자 샤를 드 푸코 -